

지역 소식

영천시인연합회 등 장학금 기탁

(사)한농연영천시연합회와 영천지역건축사회는 12월 27일 (재)영천시장학회에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써 달라며 2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한농연영천시연합회는 해마다 영천농산물한마당 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우수 농산물 홍보 및 판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장학금 전달식에서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학금의 확충이 필요하며, 대대적인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양군연합회 강원도 최우수 연합회로 선정

한농연양양군연합회(회장 김익환)가 강원도 최우수 연합회로 선정됐다.

한농연강원도연합회(회장 양승용)는 양양군연합회가 한-미 FTA 체결 등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농업의 현실 속에서 농업경영인의 위상 강화와 회원간의 화합과 단결, 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 영농 활동에 대한 활력과 의욕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양양군연합회는 제22회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서면 상평리 소재 임차농지를 공동 경작해 수확한 쌀을 지역 내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하고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펼치는 등 농업인단체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암산군연합회, 충남도 농어촌발전대상 단체 대상 수상

(사)한농연암산군연합회(회장 김종학)가 제15회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한다. 1983년 출범한 (사)한농연암산군연합회는 그동안 암산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FTA의 농업개방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지 우수농업인 해외 연수를 실시하고 친환경 영농을 위한 기술개발,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소득창출, 농가일손 돕기, 농업인들의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 등 농촌의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농업인 적극 지원”…주문 쏟아져



통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협 경남지역본부는 5일 본부 회의실에서 경남농협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07년 한 해 동안 경남농협이 추진한 사업설명에 이어 경남농협 발전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현호 한농연 경남도연합회장은 “각 사업에 있어 농협이 본연의 자세를 견지해야 하고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석 경상대 교수는 쌀 사업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한 뒤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등 유

영남농업연구소, FTA 대응 농업발전 간담회 개최



지 식품으로서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공기술의 개발과 함께 우수성을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영남농업연구소는 지난 12월 5일 대강당에서 세계무역의 자유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식량의 주권을 확실히 다지면서 우리 농촌을 21세기 웰빙(참살이) 생활의 터전으로 만들고자 영남권 식량작물·농업환경 전문가를 초청하여 영남의 농업·농촌발전 간담회를 했다.

박진득 한농연 밀양시연합회장은 “개방화 시대에 농촌이 살아남으려면 쌀을 비롯한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늘려야 한다”면서, 전문 연구기관에서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건강 기능성의 참살이(웰빙) 농작물을 육성하여 소비단계에까

성주군 농업인회관 개관

성주군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농업인회관 및 참외 교육장’이 7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에 위치한 농업인 회관 및 참외 교육장은 총사업비16억 6,400만원이 투입돼 대지 1,322㎡에 연 건축면적 1,337㎡, 2층 건물 2동으로 2006년 3월 착공해 작년 10월 완공됐다. 농업인회관은 한농연 성주군연합회 등 지역 농업인단체 등이 입주해 각종 정보공유, 농업과 관련된 기술습득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도농간 신뢰기반 교류 이뤄져야”

제주지역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잠재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사)한농연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고영천)와 (사)제주지역농업발전연구소(소장 강경선), 애월읍 장전리·유수암리, 한경면 저지리, 안덕면 대평리 등은 공동으로 18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우리 마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최근 삶의 질 5개년 기본계획이 실현되면서 농촌지역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제주 지역에서도 농업·농촌이 갖고 있는 잠재 자원을 활용해 생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농업경영인 대상 시상식서 성주군 최찬우씨 원예분야 대상

경북 성주군은 최근 열린 제14회 농업경영인 대상 시상식서 성주읍 용산리 최찬우씨(49)가 원예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성주군은 2005년 원예 분야 대상 강석수씨, 2006년 축산 분야 대상 박강규씨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수상, 성주군 농업경영인의 위상을 드높였다.

홍순보 성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씨는 센터와 함께 농업기술 지도를 받고 협력을 해오면서 수박, 배추, 참외 등 수십 년 간 농사일을 하며 친환경 인증도 받는 등 원예 분야 농업기술 발전을 이끌어 왔다”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